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대첩' 반드시 승리

관련기사 2·3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유치전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 경주 27만 시민이 뿔뿔 뿜쳐 그야말로 목숨 건 유치전을 하고 있다. 전장에 나간 투사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 대첩'에 반드시 승리해야 경주가 세계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 돼'

APEC 개최도시 선정
4·10 '총선' 후 결정...
2030 엑스포 유치실패
부산 민심 달래보려는
정치적 수단 사용하면
APEC정상회담 성공도
민심도 놓쳐 정치 논리
개최지선정 절대 안 돼

글쓴이 순서

1. 총괄
2.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주뿐
3.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돼'
4. 세계적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5. 경제 파급 효과...경주가 잘산다
6. 맺는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 유치가 옹골보다 더 뜨겁다. 경주 27만 시민이 땀땀 뿜어 그야말로 목숨걸고 유치전을 하고 있다.

전장에 나간 투사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 대접'에 반드시 승리해야 경주가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선정도시를 놓고 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지자체는 △경주 △부산 △인천 △제주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전투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대접'은 마치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의 검투처럼 하나가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던 세종시도 경주뿐이다. 주낙영 총사령관은 승리의 낭보를 27만 군사들에게 안기고 싶어 한다.

최고의 전사답게 섰을 지고 혈혈단신 사지(死地)로 뛰어들어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다.

■ 개최지 선정 정치 잣대 안 돼
문제는 정치적 논리다. APEC 개최도시 선정은 4·10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도 개최도시 선정은 총선 이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정치적으로도 무관하지는 않아 총선 전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주시는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실패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주시는 2030 엑스포 유치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부산 민심을 달래고 총선에서의 부산-경남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까지 염려하고 있다.

정치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개최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2030 엑스포 유치실패에 따른 부산 동성 여론이 변수로 부각돼서는 안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엑스포 유치실패를 무마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APEC 정상회담의 성공도 민심도 놓치게 때문에 정치 논리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선정위 언제 꾸러지나(?)
외교부 중심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도 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개최도시 선정은 1년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오는 4월에는 개최도시가 선정돼야 회의의 준비가 가능하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비공식 회의부터 시작된다. 회의를 위한 대규모 회의장은

물론 전시장과 해외 인사들의 숙박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유치 당시 외교부는 회의 시점보다 2년 앞서 APEC 준비위와 선정위를 꾸렸다.

2003년 7월 준비위를, 11월 선정위를 구성, 같은 해 12월 말 도시들의 신청을 받았다.

선정위는 4개월여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에서 2004년 4월 APEC 개최도시로 부산을 선정했고, 이듬해인 2005년 11월 제13차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같은 계산은 적용하면 이미 지난해 준비위와 선정위가 꾸려져야 했다. 그레아만 유치 출사표를 던진 도시들의 신청을 받아오는 4월까지 개최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외교부가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고사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도 꾸리지 않은 상황이라 공모 일정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개최일 1년 9개월...오리무중
개최일까지 1년 9개월여 남았다.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올해 들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절차도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애초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형태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지난 1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개최도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공모 이후에는 올해 2~3월 중 서면심사를 거쳐 개최 신청도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없다. 4~5월 중에는 선정위원회가 개최도시 대면 심사, 면접 발표 등 절차도 예정돼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개최도시로 선정되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개최도시 선정 작업이 하

반기로 미뤄지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인적 인프라 등 행사 운영 능력은 물론이고, 국제회의시설, 각종 정상들의 숙박, 공항과 교통, 보안, 미디어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 부산 민심 달래면 안 돼
자칫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이 있는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도 있다.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이 집적된 도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세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가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된다면 한류 열풍에 더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켜 국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면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함께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란 가치 실현에도 부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유치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만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APEC 유치 경주가 최적
태평양 연안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APEC은 전 세계 GDP와 교역량의 절반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 조명할 정상회의는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세계로 알려질 절호의 기회다. K-팝과 K-드라마의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어 한국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개최국의 국격은 물론 한 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다.

APEC의 경우 개최도시의 정체성이 정상회의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정체성의 힘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천 년의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흥행색채 단풍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배우자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실�크로드의 시작-종착점으로서 고대 국제교류의 상징으로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출발점"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드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교류하던 국제도시였던 경주를 이제 다시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유치 당위성을 알렸다.

■ 제주, 부산 인천 유치 총력
경주, 제주에 이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2022년 12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킨 인천시는 이후 100만 서명운동, 재외공관장 간담회, 세계 석학인 비노드 아가왈 미국 UCH클린 석좌교수의 APEC 특강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회의장과 최고급 호텔이 15분 거리에 집중돼 있고, 제주국제공항 외에 주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비행장도 갖추고 있다.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의 국제회의 및 정상회담 개최 경험도 축적돼 있다.

제주도는 APEC 3대 목표 중 하나인 무역·투자를 위해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을 앞세워 국제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5월 부산연구원에 '2025 APEC 부산 유치 전략 기본 계획' 용역을 맡겨 같은 해 12월 나온 용역 결과를 갖고 APEC 유치 전략을 만들고 있다. 부산시는 2005 APEC 정상회의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의장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해운대구 APEC 누리마루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투자 비용이 다른 경쟁 도시에 비교해 적은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2025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경북에서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도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 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동구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동구청은 오는 4월 26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주인건강피해예방및 쾌적한도시환경을 꾸민다.슬레이트철거44동(주

택38비주택6주택지붕개량4동의규모로지원한다. 지원은주택의경우최대700만원까지다. 측사·장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의 최대 200㎡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선정된 건축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 지원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 동구청 환경과(662-4115)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내 최대규모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순항

31만2881㎡ 180홀 조성 최종 목표 행정력 동원

국내 최대규모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순항이다. 김진열 군위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김 군수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군위군이 글로벌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자, 우리 군의 앞날을 이끌어갈 대표 사업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군위군 명소로 거듭날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은 지난달 29일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 및 기본 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각 부서장,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과 기초의원들이 모였다. 보고회는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점검 및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파크골프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

한 의견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의흥면 이지리 산 115-11에 총면적은 31만2881㎡로 180홀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골프장 코스를 초급자, 중·상급자, 최상급자로 구분, 고령자·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숙련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코스를 선택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 중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타트하우스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도 갖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올해까지 행정 사항을 완료, 2025년에 12만4008㎡ 81홀을 1차적으로 완공한다. 올 1월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군위군 파크골프 조성 예정지가 문화·관광지구에 포함되는바 향후 사업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 만든다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터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양육지원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성장단계별로 오감을 자극해 두뇌 발달

과정의력·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피커를 연주하는 소리랑 놀자 △식재료를 요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요리하며 놀자 △신체 움직임으로 행동 능력을 높이는 '놀이서자란다'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요리하며 놀자'는 5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매월 운영, 다른 2개 프로그램은 회기마다 각각 10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3개 프로그램 모두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체험실, 잔란감나리, 부모교육, 양육상담 등 육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맞춤 부모교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실시

문화예술·봉사활동 자기개발 분야 등

중구청은 오는 20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 건강한 청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은 거주지나 활동권이 중구인 만 19세~39세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동아리 구성원의 청년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개발 △취업·창업준비 등으로, 총 7팀을 모집한다. 단순 친목,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아리는 커뮤니티 지속성, 확대성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한다.

기존 활동팀 중 우수 2개팀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외에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재료비, 강사료, 인차료 등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 및 제출서류를 갖춰 중구청 혁신사업홍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cismem10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 공고문, SNS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혁신사업홍보실(661-2185)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자라나는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 중구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3년 연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대구 미복귀 전공의 700명 행정처분 시작

정부, 미복귀 증거 확보 면허정지 등 의료법따른 행정처분 이행... 초강수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의 전공의 814명 중 734명(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이중 700여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6일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에 따르면 전공의 814명 중 734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 대구지역 사직 전공의를 병원별로 보면 △경

북대병원 본원 183명 중 179명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이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일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일 사직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이들 중 7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면허정지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

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복귀한 대구지역 전공의는 영남대병원 1명, 유일하다. 대구지역 내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따라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대학들은 정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 줄 것을 신청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110명에서 250명, 계명대는 75명에서 최대 200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 등의 증원을 신청했다. 영남대도의대생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2명으로 늘려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황태용 기자

달성은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2곳 신규개원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 공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난 4일 화원읍 소재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엘 아파트 내 '국공립 별초롱어린이집'과 유가읍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에미지더센터아파트 내 '국공립 에미지더센터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2곳 개원으로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7곳으로 늘어났다. 군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

집 비율을 약 31%까지 끌어올렸다. 군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22%를 크게 상회,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에 더욱 부응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17곳을 개원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보육정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에서 출생아 수가 1등인 만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보육인프라를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지역 예술인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수성구 카를스루에서 우호 교류협력 성공 바리톤 김주현 독일 오페라 '무대' 데뷔

수성구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바리톤 김주현(30)이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시즌 오페라 '카르멘' 무대에 올라 성공적인 해외 데뷔를 치렀다고 6일 밝혔다. 바리톤 김주현은 독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열린 공연에서 상등병 모랄레스 역을 맡아, 강점으로 꼽히는 깊이 있는 음색과 다채로운 표현력을 바탕으로 모든 역할을 발휘한 무대를 선보였다.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와 Dr. Albert Käuflein 카를스루에 문화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국립극장장, 오페라 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카를스루에 국립극장은 발레단, 극단, 관현



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예술인 750여 명이 상주하며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 매년 75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기획·운영하는 유서 깊은 곳이다. 바리톤 김주현의 독일 데뷔는 수성구와 카를스루에서의 우호 교류협력 사업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2023/2024 현지 시즌 오페라 무대 데뷔 오디션 개최로 대구·경북 지역 청년 성악가들이 독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차 영상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35명 지원자 가운데 최종 1인으로 선발된 김주현에게 이

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영남대학교 성악과 출신으로 순수 국내파로 활동했던 그의 독일 데뷔는 지역 신진 예술인에게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성악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수성아트피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지 시즌 오페라 무대 데뷔 오디션을 진행한다. 대구·경북의 재능 있는 대학생들이 현지 경험을 통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럽 우수 극장 예술감독 4명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페라 스튜디오(Opera Studio) 오디션'도 같이 추진한다. 현지 시즌 오페라 무대 데뷔 오디션과 오페라 스튜디오 오디션은 오는 7월 4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청년 성악가의 성공적인 독일 데뷔를 축하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유럽 현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행정 펼친다

생활속 민원해결 현장서비스 맞춤 서비스로 든든한 동반자

울릉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친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생활민원 신속 처리반'을 운영으로 행정의 쇄외계층 및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잡는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은 일반주민들

을 비롯한 취약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에 생활 불편사항을 신청 받고, 즉시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남한권 울릉군수의 의지를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3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팀에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업무 신설 및 인력 3명을 배치하여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은 군 내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29.4%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기본적 일상과 직결되는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샤워기를 비롯한 소규모 집수리 등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6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주민은 재료를 본인이나 부담하

게 되며, 취약계층·장애인·70세 이상 가구 등은 회당 5만원 이내 무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단, 영업용 시설과 비주거용 시설 등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생활 불편사항이나 민원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용전화(054-791-3001)로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현장 출동해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남한권 군수는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들은 작은 불편사항도 직접 해결하기 어렵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울릉군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결하는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이분들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 아동복지기금 관심 속 기탁 행렬 이어져

청도군은 아동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관심이 기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백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그란영농조합법인과 대한불교삼존종연화사에서 각 1백만원 기탁했다. 또 지난 2월 말 진안건설주식회사에서 2백만원을 기탁해 군민들의 관심을 표현했다.

청도군 아동복지기금은 지난해 9월 조례가 공포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6억원의 군출연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개인과 단체로부터의 기탁도 접수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 아동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청도군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목적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치유클럽 운영기관 선정

영덕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4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클럽' 공모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가족치유클럽'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족치유클럽' 공모사업은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조여은 기자



영덕고, '2024 춘계 전국 고등 축구대회' 준우승

최최근 감독 축구 철학 영덕고 강팀 자리 매김

영덕고등학교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남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춘계 전국 고등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도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엔 총 40개 팀이 참가해 10개 조로 나눠 치러졌다.

영덕고는 서울공고, 경기HSFA, 전북세만금FC와 함께 5조에 편성됐다.

영덕고는 지난 16일 첫 경기에서 새만금FC를 3:0으로 가볍게 꺾는 것을 시작으로 조별 예선 2승 1무로 무난하게 16강에 안착했다.

이어 24일 열린 16강에선 서울경신고를 6:0으로

완벽하게 대파하며 8강에 진출했다.

특히 8강과 4강에서 만난 우승 후보 수원삼성 U18 매탄고와 충남 서산FC를 후반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로 끌고 가 결국 승리하는 드라마로 결승에 올랐다.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 영덕고는 지난 1일 열린 충남 신평고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64분 내준 선취골을 상대 골키퍼의 선방으로 만회하지 못해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영덕고는 지난 2022년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춘계 전국 고등 축구대회에 2년 만에 다시 결승에 진출해 명실상부한 강팀의 반열에 올라 서게 됐다.

1982년 창단된 영덕고 축구부는 지난 2017년 최호관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최감독은 과감한 선수단 구성과 효과적인 코

칭, 그리고 태도와 의지를 중시하는 축구 철학으로 영덕고를 단시간에 전국 최고팀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2020년 제51회 부산MBC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거둔 준우승을 시작으로, 2021년 무학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준우승, 2022년 대통령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저·고학년부 동반 준우승, 경북도 도민체전 8년 연속 우승 등 괄목할 성과를 남겼다.

결승전을 직접 찾아 응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매해 성장하는 선수들과 호성적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최호관 감독님과 선수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투지와 스포츠 정신이 성적만으로 다 표현될 수 없듯이 이러한 영감이 지역의 단합과 성장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조여은 기자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꿈의 댄스팀 영덕 2기 참여자 모집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댄스팀 영덕'의 2기 참여자 모집을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꿈의 댄스팀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해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춤이란 예술을 배우고 습득하면서 창의력을 기르고 자신의 환경과 내면의 이야기, 자아정체성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전인적

인 성장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꿈의 댄스팀 영덕은 작년 6월, 초등 5학년부부터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리큘럼부터 스트리트 댄스,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분야를 교육했고 마음껏 춤춰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댄스라는 장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다. 조여은 기자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4일부터 29일 까지 장학회 사무실에서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과 학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영재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수혜범위를 확대해 왔다.

장학사업은 2024년의 경우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반값), △대학생 장학금(재학),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등 8개 모집 분야로 나누어 총 38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반값)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및 보호자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 중이며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100만 원(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생 장학금(재학) 지원 대상자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50만 원(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분야별 신청 기준 및 지급금액은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권윤동 기자

청도, 산림소득증대사업 대상자 교육

청도군은 지난 5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및 가공 등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업경쟁력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금년도 산림소득분야에 총사업비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여 명의 임업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의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청도군은 청도반시, 대추, 산딸기, 표고 등 청정된 자연 속에서 재배된 우수한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조여은 기자

새 희망 / 새 울릉!

독도 명예주민증 가지고 계신가요?

독도의 주민인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울릉군 울릉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